

전일동향

전일 대비 22.90원 하락한 1,512.10원에 마감

9일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5.60원 하락한 1,529.40원에 개장했다. 미-이란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과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전일 대비 22.90원 하락한 1,512.10원에 마감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24.0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2.86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529.40	1533.00	1509.00	1512.10	1518.40
엔화	958.29	958.71	942.38	942.86	-	
유로화	1770.36	1771.54	1742.15	1745.27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93	-3.68	-7.79
결제환율(수입)		-0.54	-2.26	-5.55	-10.75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CPI 경계감에...1,52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512.10) 대비 10.95원 상승한 1,521.7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중동 불안감 재점화와 미국 CPI 경계감에 상승 전망이다. 이란이 미군 헬리콥터를 격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시사하면서 양국 간 휴전 상태가 여전히 불안정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뉴욕증시에서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었다. 여기에 발표를 앞둔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이전치를 상회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시장의 경계감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율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민연금 환헤지에 대한 경계감은 환율 상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515.75 ~ 1529.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0063.8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0.95원 ↑
	■ 美 다우지수 : 50872.11, +86.1p(+0.1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6.0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936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